

# GLOBAL TREND

## 세계지방자치동향

### 일본

- ▶ 일본 광역연합의 특징과 시사점
- ▶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메가시티에 관한 일고 : 지속가능한 광역행정의 관점에서

### 미국

- ▶ 미국의 초광역권 : 메가리전(Megaregions)

### 프랑스

- ▶ 그랑파리(Le Grand Paris)로 살펴보는 프랑스의 메가시티 전략 : 경제 활동 인구의 삶의 질 개선과 환경 보호

### 한국

- ▶ '충청시대'를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현황
- ▶ 동남권(부산·울산·경남) 메가시티 추진 사례



#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메가시티에 관한 일고 : 지속가능한 광역행정의 관점에서

## 저출산·고령화와 광역행정의 필요성

- ‘메가시티’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
- 현재 도시에는 빈곤과 격차, 방대한 산업 인프라와 건축물의 노후화 그리고 도시 거대화로 인한 위험과 파괴 문제의 심각화(환경, 재해, 테러, 전쟁, 팬데믹) 등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음 (町村敬志, 2016)
- 한편 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시정촌은 저출산·고령화, 환경, 정보화 정도에 따라 다양화, 고도화되어 행정과제의 광역화 대응이 시급함(総務省, 2024)
- 일본은 2014년부터 ‘국토 그랜드 디자인 2050’ 계획을 수립하고,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나고야 중심의 중부권, 오사카 중심의 관서권을 ‘메가시티 리전(Megacity Region)’으로 육성하고 있음 (조선일보, 2023.11.9)
- 메가시티 리전은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에서 신칸센의 활용과 그에 따른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도모하고 앞으로 맞이하는 본격적인 지식 집약형 사회에서 일본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가는 핵심이 됨
- 리니어 중앙 신칸센의 개통이 가져오는 이동 시간의 극적인 단축은 AI, IoT화 등의 진전과 함께 지금까지의 일과 생활 방식을 제약하는 요인이었던 시간과 장소에서 사람들을 해방하고, 각 세대의 비즈니스 스타일,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(国土交通省, 2019).
- 메가시티 리전 구상은 국토 기반의 정비뿐만 아니라 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근본적인 혁신을 도모하고, 경제발전과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구감소 시대에 상응하는 새로운 도시 재설계(urban re-design)로 볼 수 있음
- 3대 도시권 사이의 중간역에 위치한 주변 지역은 다양한 인재가 활발하게 왕래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
  - 예를 들어, 지역의 강점을 살린 신산업을 창출해 나가는 동시에, 대도시에서 근무하면서 자연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주하는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할 수 있는데, 이를 “중간역 주변 지역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지방 창생”으로 명명할 수 있으며,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(国土交通省, 2019)

##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적 보충성

- 한국의 메가시티 구상에 관해 “지방에 공항이나 산업단지를 짓는 식으로 광역 개발을 하다 보니, 과잉·중복 투자만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다”며, “오히려 메가시티 전략으로 지역을 통합하면 투자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”이라고 지적함(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)
-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“이전에도 균형발전위원회 같은 조직이 있었지만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”며, “행정구역이 통합되면 이런 비효율은 해결할 수 있다”고 주장함(조선일보a, 2023.11.9)
-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민은 사회동태·자연동태에 따라 변화함
  - 따라서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요구도 바뀌고, 행정 시책에도 변경이 요구됨.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사회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감축적인 체제변경이 필수임
- 반면 인구감소국면에 있어, 그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임
- 이러한 관점에서 「지속 가능성」 결여의 본질은 현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내성을 사회 체제가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음(勢一, 2018)
- 지방자치는 주권자인 주민이 담당하는 것이며, 상황마다 최적의 체제를 형성·선택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음. 이것은 주민에게 ‘비용’을 수반함
- 주민 특성도 매우 다양함. 가치관을 서로 존중할 수 있는지,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‘이웃주민’과 공생할 수 있는지, 미래세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,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주민 간 관계하고 있음(勢一, 2018)
- 보충성의 원칙은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을 더 큰 단위가 보완해 나간다는 사고임
-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하동현 교수는 보충성의 원칙이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을 일차적으로 존중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주변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제공한다고 주장함
- 지방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 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해 무엇을 학습하고 키워나갈지, 때로는 합리성과 경제성에 근거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조정 및 협력해 나갈지 등 자기혁신을 보여주어야 함. 이것이 보충성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우리가 구현해 나가야 할 지방시대의 모습임(내일신문, 2023.9.6)

##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기반

- 일본은 새로운 자본주의나 디지털 전원 도시국가 구상에 근거해, 일본을 둘러싼 환경 변화나 국내에서의 구조적 과제에 대응함
- 특히, 디지털 혁신 대응, 그린화 추진, 활력있는 지역 만들기, 대내외 환경 변화에의 대응함과 동시에, 안전·안심의 실현, 지방행·재정 기반·지속 가능한 사회기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(総務省, 2022)
-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다섯가지의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(総務省, 2022)
  - 디지털 변혁에의 대응, 그린화의 추진, 활력 있는 지역 만들기
  - 대내외환경변화 대응
  - 방재·감재, 국토 강인화의 추진에 의한 안전·안심 실현
  - 감염증에 대한 대응,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실현을 위한 지방 행·재정 기반 확보
  -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 확보
- 특히, 사회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우정사업을 포함한 정보통신, 급여, 행정운영 개선, 통계, 주권자 교육에 관한 대처를 꾸준히 진행함

## 시사점

- 본고는 소위 메가시티를 둘러싼 정치과정 및 사업의 편익보다 메가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과 아이디어에 중점을 두었음
-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와 산업의 공동화를 전제로 한 연착륙의 방법으로서 지속가능성과 보충성을 활용하고 있음
- 일본은 중앙과 지방이 상호 보충하고 연계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행정을 통한 소위 메가시티를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

## 참고문헌

- 내일신문. “보충성의 원칙’과 지방시대”. 2023.9.6.
- 조선일보. “日, 쿄·나고야·오사카 ‘메가 리전’… 中도 ‘징진지 계획’”. 2023.11.9.
- 조선일보a. “이젠 국가 아닌 도시 경쟁”… 세계 33곳이 메가시티 프로젝트”. 2023.11.9.
- 国土交通省. (2019). 「人口減少にうちかつスーパー・メガリージョンの形成に向けて」, 東京 :

- 勢一 智子. (2018). 地域社会の持続可能性について. 「地方自治法施行七十周年記念自治論文集」, No. 1 : 241-254.
- 総務省. (2022). <https://www.soumu.go.jp/kouiki/kouiki.html>(검색일: 2024.3.5.)
- 総務省. (2022). 「地域課題の解決を通じた持続可能な地域社会の実現(総務省重点施策2023)」, 東京: 総務省.
- 町村敬志. (2016). メガシティ東京の過去・現在・未来. 「学術の動口」, No. 21(1) : 12-17.